

광주시,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지원 논란

‘바르게살기’ 전신은 전두환 5공 전위기구 ‘사회정화위원회’

시민단체 “특정단체 위로성 축하행사 혈세...보조금 중단” 촉구

광주시가 광주에서 열리는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에 시비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키로 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특정단체 위로성 축하행사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보조금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광주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 등 30개 광주시민사회단체는 23일 성명을 통해 “광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에 보조금 집행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고 잔여금을 즉각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는 26일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광주여자대학교 유니버시아드체육관에서 ‘2019 바르게살기운동 전국대회’를 개최했다.

‘전국대회’는 이번이 26회째로, 그동안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대회를 치러왔다. 광주 대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그램은 3시간 동안 기념 축하공연, 포상 수여, 30주년 기념 영상 상영, 축사, 인사말 등 바르게살기 30주년을 자축하고 회원들을 위로하는 행사로 진행된다.

시는 이 행사를 위해 3억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했다. 3억원은 전액 시비 지원으로, 지난해 광주시의회도 동의했다.

보조금 3억원은 행사를 맡은 기획사에 1억7000만원, 30주년 기념 영상 제작에 1000만원, 참가자들에게 나눠주는 기념품 제작에 9000만원(1만원×900명) 등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밖에 시도 회장단 회의와 진행비 등 5000여만원은 이번 대회를 주관한 ‘바르게살기운동 광주시협의회’가 자부담한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1989년 창립때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초헌법기구인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를 통해 출범시킨 사회정화위원회가 전신이다.

근로정신대 시민모임은 “사회정화위원회는 정치적·도덕적 정당성이 취약한 5공회국 체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일종의 ‘전위기구’였

다”며 “기성 정치인 검거를 비롯해 5000여명을 공직에서 퇴출시킨 데 이어, 교수 86명 등 교육공무원 611명, 기자 등 715명도 해직시켰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는 학생 1000여 명을 제적시켜 강제로 군대에 보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1980년 말에는 ‘순화교육’이라는 명목으로 1만8천여명을 삼청교육대로 강제로 입소시켜 물의를 빚었고, 사회악 일소 명목으로 5만 7000여명을 특별 검거하는 등 전두환의 철권통치를 위해 초헌법적 유희를 저지르며 악명을 떨쳤던 조직으로 유명하다.

1988년 13대 국회에서 열린 ‘5공 비리 청문회’를 통해 사회정화위원회의실상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온 국민의 지탄을 받았고 결국 노태우 대통령은 1989년 2월 사회정화위원회 설치 근거였던 ‘사회정화운동조직육성법’을 폐지했다.

이후 두 달 뒤인 1989년 4월 사회정화위원회의 조직과 인원을 흡수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라는 민간단체로 발족시켰다.

시민단체는 “전두환 정권의 전위기구로 출발한 구시대 유물이 지금까지 연명하고 있는 것도 어처구니없는 일이지만, 광주시가 특정단체 행사에 3억원이나 되는 광주시민들의 고귀한 혈세를 지원한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전국 대회’ 지원금 3억원을 제외하고도, 광주시를 비롯해 5개 자치구가 올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단체 운영비 1억6000만원을 비롯해 약 3억원에 달한다.

시민단체는 “혈세가 해마다 특정단체 운영과 사업비 명목으로 3억원 가깝게 선심성으로 지원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 시민들이 바르게살기 전국대회 행사의 축하 공연비와 참가자들 기념품 값까지 대야 하니, 실로 말문이 막힌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한 지원 근거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 육성법 자체가 독재 권력과 결탁해 얻은 특혜”라며 “육성법은 필요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일 뿐 무조건 지원하라는 강행규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지원을 하더라도 사업의 공익성과 필요성, 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해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국가가관도 아니고 공익성과도 무관한 ‘바르게살기’ 위로 행사에 시비 3억원을 들여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은 광주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짓밟는 행위이자, 5·18 정신을 모독하는 행위”라며 “시는 당장 바르게살기운동광주시협의회에 보조금 집행을 중단하고 잔여금을 회수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속타는 농심 23일 오후 경북 포항시 흥해를 신광면 우각리 과수원에서 농장주 이 모씨(82)가 강풍에 떨어진 배를 모으고 있다.

5년간 광주·전남 마약류 범죄 1592명 검거

최근 5년간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마약류와 관련된 범죄로 1592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4만182명으로 확인됐다.

이중 광주는 664명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85명, 2016년 141명, 2017년 123명, 2018년 158명, 올해 7월까지 157명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전남은 2015년 156명, 2016년 211명, 2017년 224명, 2018년 162명, 올해 7월까지 175명 등 928명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됐다.

김 의원은 “감소추세를 보이던 마약범죄에 대한 검거 인원이 다시 늘어나고 있다”며 “마약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탄핵’ 낙서 대학생 재물손괴 입건

대학생이 ‘대통령 탄핵’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씨(2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의 철재 출입문과 담 등 2곳에 스프레이로 ‘문재인 탄핵’이라고 낙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서울 소재 대학 휴학생인 A씨는 부모가 사는 광주에 들렀다가 낙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 신념을 표출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정당에 가입돼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페인트를 덧칠해 낙서가 보이지 않게 했다.

육군 중위 술취해 경찰 폭행...헌병대 인계

육군 장교가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해 헌병법으로 체포됐다.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군 부대소속 A 중위(26)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 중위는 21일 오전 5시쯤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다.

A 중위는 싸움을 벌이는 B 경위(53)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고, 이 과정에서 B 경위가 상점 앞 계단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혀 순간적으로 의식까지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중위를 헌병법으로 체포한 후 군 헌병대에 신병을 인계했다.

헬기가 컨테이너 박스 매달고 가던중 떨어져

23일 오후 2시17분께 경기 용인시 양지면 남곡리 한 식당 건물 뒤 편비닐하우스에 헬기가 매달고 가던 컨테이너 박스가 떨어져 지점 대형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

컨테이너 박스를 매달고 가던 헬기는 미군 소속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와 소방서 등 관계 기관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노래방서 女 초등생 집단폭행 한 중학생들

경기도 수원시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폭행한 영상이 SNS에 게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6시께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인근 한 노래방에서 여중생들이 자신보다 한살 아래의 여자 초등학교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 중 한명인 A양(14)은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 여학생 B양(13)과 메시지를 주고 받던 중, 친구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다 말 표현 등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만나서 이야기 하자”며 B양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후 B양은 3~5명의 A양 일행을 만나 노래방에 갔고, 그곳에서 집단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2일에 게재된 해당 영상에는 노래방에서 A양이 손바닥으로 B양의 이마를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B양의 코에서는 피가 흘렀고 울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못했다. 또 주변에는 남학생이 노래를 부르는 소리도 들렸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B양 부모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22일) 오후 4시께 가해학생들의 폭행건에 대해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 등 가해학생 3~5명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재학 중인 중학생들로, B양은 A양을 제외한 이들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